

2020. 11. 16

코로나 확산 불구 백신 기대 등으로 가산금리 하락

장원영 | 책임연구원(3705-6155)

- |유통시장|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주요 지역 봉쇄 강화에 따른 불안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개발 및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우위를 점하면서 포크레딧물 가산금리 하락, CDS도 하락

- **亞 크레딧물 가산금리** : IG, HY 하락 (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-4.9bp, HY -10.9bp)

- 한국물 가산금리는 하락(-10bp~0bp)
-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탁월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, 모더나도 곧 3차 임상시험 잠정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백신개발 낙관적인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중. 또한 美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4주 연속으로 감소하여 70만 9천명으로 팬데믹 기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위험선호 투자심리 개선
- 亞 크레딧물은 최근 중국 역내 국유기업 채권(광산업체, 10억 위안) 디폴트가 크레딧 심리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, 2018년부터 이어져온 구조조정 트렌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. 여전히 백신 기대와 2021년 경기회복 기대감 등을 반영하면서 Search for Yield 심리가 되살아나 가산금리가 하락(GS)

- 亞 CDS 하락 : 일본 -1.0bp, 중국 -1.0bp, 한국 -1.0bp, 말련 -3.3bp, 태국 -5.0bp, 베트남 -8.2bp, 인니 -7.7bp, 필리핀 -3.5bp

- **발행시장** 11월 둘째주 포 달러채(ex-Japan) 시장은 전주대비 증가한 약 \$86억 발행 (11월 첫째주 \$9억 발행)

- 11월 둘째주는 지난주 美대선 결과 대기모드로 발행량이 적었던 9억불(중국물) 대비 총 86억불 발행. 美대선 일정 이후 백신 낙관론 분위기와 함께 중국 발행사들을 중심으로 발행에 활발히 나섬(Bloomberg)

<표 1> 주요 亞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

발행기관	종류	신용등급	발행일	만기年	통화	발행액억	발행금리	주문억	비고
Yili Holding Investment	RegS	A3/-	20/11/12	Perpetual	USD	5	5T+125bp	5	-

<표 2> 한국계 가산금리

	발행액	만기	'19년말	11/6일	11/13일
외평채'29	10	6/19/2029	47	46	43
산업은행'24	5	10/1/2024	51	48	45
국민은행AT1	5	7/2/2024(1 st call)	206	262	252
한국서부발전'22	3	7/22/2022	59	50	48
한국전력공사'24	5	6/24/2024	68	57	57

<표 3> 亞 주요국 CDS

	'19년말	11/6일	11/13일
한국	22	23	22
일본	20	17	16
중국	31	33	32
태국	23	43	38
인니	62	84	76

자료: KCIF 등. 단위: 각 통화 억, bp

- 미국 IG 발행시장: 11월 둘째주 IG발행시장은 지난주 대비 증가한 총 \$413억 발행(전주 \$25억)

- 11월 둘째주는 美대선 이후 발행사들이 활발히 발행에 나서면서 총 413억불(17개 발행사) 발행. 다음주도 약 250억~300억불 발행량 있을 것으로 예상(Bloomberg)
- 11월 둘째주 포함 11월 평균 NIC는 -3.4bp, 평균 유효주문배수는 3.9배수, 평균 Compression은 -27.2bp로 집계

